

## 광주비엔날레 시작부터 화제 만발

오늘 개막식...특집 12·13면

‘작품 제작 참여 시민 2000명’ ‘전시 시작 전부터 작품 판매’ ‘작품 도난 해프닝’ ‘보험가만 165만 불짜리 작품’ ‘대선 후보 총집결’...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6일간 열리는 제 9회 광주 비엔날레를 앞두고 화제가 만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 아시아의 대표적 비엔날레인데다, 미술애호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40개국 92명(팀)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 데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국내외 미술계 별들의 발걸음 일제히 광주로 향하고 있다.

지난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인,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2013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과 국제미술계의 소식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안톤 비도를 이플릭스 대표, 알렉산드로 멘로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를 비롯,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과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등 수백명이 광주를 찾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로 꼽히는 중국의 아이웨이웨이는 트위터로 개막 메시지를 전한다.

R.O.U.D T.O.L.

개막전부터 작품 팔리고

보험가 165만불 작품도

시민 참여 벌써 2000명

작가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들도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됐다. 개념미술가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그들이 떠난 곳에서-바다, 2012’ 작품을 제작하면서 신문과 시내 곳곳에 분실공고를 내 시민들의 문의전화까지 폭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범 작가가 내놓은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이라는 종이찰흙으로 빚은 통닭 12마리는 전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3마리 이상 팔려나갔다. 한 마리당 300만원짜리 통닭임에도, 작품이 팔리면 판매액 전액을 통닭 쿠폰으로 바꿔 지역 복지시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는 작가의 구상이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구입

의사를 피력했고 아예 통째로 사들이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만 작가 존양씨는 시민들과 제작한 작품을 광주일보에 끼워 배달기로 해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작가 포크롱 아나당의 ‘손뼉’, 크레이그 윌시와 히로미 탕의 ‘흙-광주’ 등 참여형 작품 제작 과정에서는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작가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사연도 만발했다.

또 303개의 작품 중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신작 ‘1872 사우스’, ‘1910 웨스트’, ‘2871 이스트’의 경우 회화 작품인데도 작가의 명성으로 인해 보험가만 165만 달러에 달해 전시 관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형 마트에 밀리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했던 대인시장은 상인과 예술가, 전시 관계자들 로 인해 ‘시장통’처럼 북적대는 등 활기가 넘치고 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6일 오후 7시 비엔날레 전시관 앞에서 개막식을 열고 66일간의 전시에 들어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캔버스 된 옛 전남도청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5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 일대에서 열린 ‘페스티벌 오! 광주-미디어 아트 2012’. 옛 전남도청이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해 관람객들에게 화려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여수박람회장 해양특구 지정

### 2021년까지 민간주도 세계적 복합관광리조트로 개발 정부 활용방안 확정...부지매각 지연땀 자산공사 위탁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특구로 지정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5면> 또 사후활용을 담당할 비영리재단법인을 연내 설립하고, 박람회 이전에 지어진 정부 선투자금(4846억원)은 우선 상환이 원칙이지만 박람회 부지매각이 지연될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 관광리조트 조성=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이 참여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후활용 계획안의 큰 틀은 부지 271만㎡에 달하는 박람회장 공간을 해양특구로 지정해 정부가 적극 관여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박람회장을 복합 콘텐츠클러스

(빅오 주변), 마리나 구역(엠블호텔 주변), 엔터테인먼트 구역(기업관 주변) 등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양특구 지정,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매각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박람회기념관, 해양과학관을 조성하는 등 부지·시설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에 박람회 특화시설과 기념관, 마리나 등을 중심으로 박람회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특별법상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이날 정부가 확정된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 부지 매각과 시설 관리, 민간투자 유치,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 등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 이 추진되며,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

을 경우에는 우선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사후활용 주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법인의 운영비는 부지 임대료와 시설물 운영수익, 광고, 박람회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애초 우려와는 달리, 정부가 박람회장을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점 등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민간 주도의 개발을 기반으로 하지만 특별법상 법인 설립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선투자한 4846억원은 2013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매각이 지연될 경우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수익금과 민간 기부금, 국제기구 출연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공적원조(ODA)와 연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 F1 홍보대사 싸이

‘놀 줄 아는 남자’ 싸이가 올 가을 영암에서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 한국대회(10월 12일~14일) 홍보대사로 나선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5일 “경기도 광주의 씨엘파크 스튜디오에서 지난 4일 가수 싸이에 대한 F1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수 싸이는 지난 7월 ‘강남 스타일’을 발표해 각종 음악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서 조회수 1억건을 돌파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떠오르고 있다. 싸이는 “세계적 모터스포츠축제의 F1대회 홍보대사로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F1대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싸이는 F1 결승전이 펼쳐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영암 F1경주장 상설블록 콘서트장에서 ‘싸이 F1 특별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대선경선 오늘 광주·전남 대회전 ▶3·4면

선운지구 진아리채  
내 삶을 채우는 건, 그저 단순한 바람  
기분 좋아지는 산책과 여유  
반짝 반짝 빛나는 햇살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행복과 만나는 중입니다  
진아리채에 살니다  
선운지구에는 진아리채가 있습니다  
59㎡·71㎡·78㎡ | 총 315세대  
어등산·황룡강 대자연을 품은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  
1566-2105